# 제1강 『시경』과 『초사』- 노래로 말하다

노래에는 힘이 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다독여주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한없는 슬픔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흥이 나서 저절로 몸을 흔들게 만들기도 하고 지나치게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밖으로 나갈 때의 불안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비판과 풍자 등 진솔한 마음을 짧은 노래에 담은 사람도 있었고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민족 이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길고긴 이야기를 노래에 담은 민족도 있었다. 때론 노래 속에 세상의 이치와 법칙, 공동체의 규율까지 담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노래는 배우기도 쉽고 기억도 잘 된다. 그래서 노래는 어디서나 최초의 '문학'이었다.
북방의 노래를 대표하는 것은 춘추시대의 **『시경(詩經)』**
남방의 노래를 대표하는 것은 전국시대의 **『초사(楚辭)』**

노래는 한족만의 것은 아니었다. 황하(黃河)의 북쪽에 살았던 초원의 유목민족에게도, 장강(長江) 근처의 산골짜기에 살았던 여러 민족에게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오랜 노래가 있었다. 한족은 그것을 문자로 기록했고,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시켰다. 문자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현대의 우리들은 문자로 기록된 한족만의 『문학사』를 유일한 『문학사』로 생각하지만 조상 대대로 전승되어 내려온 노래의 역사를 배운 민족은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어차피 말이란 마음을 다 담지 못하고 문자란 말을 다 담지 못하는 것 아니던가. 그들에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 노래들이 바로 역사이며 또한 『문학사』였다. 그들 역시 노래의 힘을 믿었다. 그러니 북방 황하유역의 노래인 『시경』에도, 남방 장강유역의 노래인 『초사』에도 그러한 구전(口傳)의 전통을 지닌 노래의 흔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1. 『시경』-시대를 읽는 노래

주(周)나라 말기부터 춘추시대에 이르는 시기, 주나라 땅에서 불렸던 노래모음집.
기원전 8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의 노래. 노래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들.
3천 년 전의 노래모음집인 『시경』에는 지금의 우리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음.

-공자의 『시』 사랑- "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는 할 말이 없다[不學詩無以言]"
-공자가 수많은 시를 정리하여 305수로 만들었는가?
-『시□가 춘추시대 필수 교양이 된 이유는?

-풍(風), 아(雅), 송(頌)이란?

「구구 물수리[關雎]」

구구 물수리 강가 모래섬에 있네. (關關雎鳩, 在河之洲)

마음씨 고운 아가씨는 사내들의 좋은 짝. (窈窕淑女, 君子好逑)

들쑥날쑥 물 마름은 여기저기 흐르고, (參差荇菜, 左右流之)

아리땁고 참한 아가씨 자나 깨나 뒤쫓네. (窈窕淑女, 寤寐求之)

뒤쫓아도 얻지 못해 자나 깨나 님 생각, (求之不得, 寤寐思服)

기나긴 밤 지새우며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네. (悠哉悠哉, 輾轉反側)

「그대의 옷깃[子衿]」

푸르디푸른 그대 옷깃, 그대를 그리는 내 마음 한없이 이어져요. (靑靑子衿 悠悠我心)

내가 그대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대마저 연락조차 없나요. (縱我不往 子寧不嗣音)

푸르디푸른 그대의 머리장식, 그대를 그리는 마음이 한없이 엉겨있는데, (靑靑子佩 悠悠我思)

내가 그대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대도 나를 찾지 않나요? (縱我不往 子寧不來)

정처 없이 성문 밖을 거닐어요. (挑兮達兮 在城闕兮)

그대 본 지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석 달이나 된 거 같아요. (一日不見 如三月兮)

「들판의 죽은 노루[野有死麕]」

들판에서 노루 잡아 하얀 띠 풀로 곱게 쌌네. (野有死麕, 白茅包之)

아가씨 봄바람 났네. 멋진 청년이 유혹한 거지. (有女懷春, 吉士誘之)

숲에서 떡갈나무 베고 들판에서 사슴 잡았네. (林有樸樕, 野有死鹿)

하얀 띠 풀로 꼭꼭 싸서 가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네. (白茅純束, 有女如玉)

가만가만 천천히 내 앞치마 건드리지 말고 삽살개 짖지 않게 해요. (舒而脫脫兮, 無感我帨兮, 無使尨也吠)

「큰 쥐야[碩鼠]」

쥐야, 쥐야. 내 기장을 먹지마라. (碩鼠碩鼠, 無食我黍)

3년이나 너를 섬겼는데 나를 아니 돌볼 거냐? (三歲貫女, 莫我肯顧)

반드시 너를 떠나, 저 낙원으로 가리라. (逝將去女, 適彼樂土)

낙원이여, 낙원이여. 바로 내가 머물 곳. (樂土樂土, 爰得我所)

「고사리 캐세[采薇]」

예전에 제가 떠날 때, 수양버들이 하늘거렸지요. (昔我往矣, 柳柳依依)

오늘 돌아오는 날엔, 하늘 가득 눈발이 흩날리네요. (今我來思, 雨雪霏霏)

가는 길은 더디고, 배는 고프며 목이 타네요. (行道遲遲, 載渴載飢)

내 마음 너무나 아픈데, 누가 내 슬픔 알아줄까요. (我心傷悲, 莫知我愛)

「옷자락 걷어 올리고[蹇裳]」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옷자락 걷어 올리고 진수를 건너오세요. (子惠思我, 蹇裳涉溱)

그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없지 않아요. (子不我思, 豈無他人)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남자야. (狂童之狂也且)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옷자락 걷어 올리고 유수를 건너가겠어요. (子惠思我,, 蹇裳涉濡)

그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없지 않아요. (子不我思, 豈無他士)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남자야. (狂童之狂也且)

2. 『초사』 - 거침없는 상상의 세계

호남성(湖南省 후난성), 저항의 땅

- 마오쩌둥[毛澤東], 류사오치[劉少琦], 탄스퉁[譚嗣同], 펑더화이[彭德懷]의 고향

상서[湘西 샹시]지역의 남방장성(南方長城)- 먀오족[苗族]의 땅

-마오쩌둥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기본적으로 '저항정신'의 소유자들. 2천년 봉건 전제의 시절을 끝장내고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젊은 시절의 그들을 있게 했던 건 바로 '저항정신'. 청년 마오쩌둥이 호남성 장사(長沙)의 상강(湘江) 가에서 만났던 2300년 전의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은 그 자유로운 '저항정신'의 상징.

호남성,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을 가진 땅

마왕퇴[馬王堆] 한나라 무덤-

네 겹의 칠기 관, 붉은 색과 검은 색 칠기들의 찬란한 빛깔,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고 투명하며 섬세한 비단옷, 핏줄조차 그대로 남아있었던 승상 부인 신추(辛追)의 미이라.

초나라의 신비롭고 기이한, 아름답고 환상적인 세계- 그 사유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무풍(巫風)'

호남성은 지금도 '소수민족'인 먀오족[苗族]이나 투쟈족[土家族] 등이 살고 있는 곳. 북쪽으로는 중원과 연결되는 곳이지만 남쪽으로 야오족[瑤族]이나 좡족[壯族]이 살고 있는 광서[廣西광시]와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귀주[貴州구

이저우]와 운남[雲南윈난]성으로 연결됨. 그러니까 이 지역의 문화에는 중원의 문화와 다른 민족들의 문화가 자연스레 섞일 수밖에 없는 것. 고대 초나라 때에는 더 그러했을 것이고 그것은 시인 굴원의 작품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

**드라마틱했던 전국시대, 파란만장했던 시인 굴원**(B.C.340-278)**의 생애**

-배경: 초나라와 진나라
-등장인물: 초나라 회왕(懷王), 삼려대부 굴원, 상관대부 근상, 회왕의 아내 정수, 재상 자란,
회왕의 아들 경양왕, 진나라 장의(張儀)

**거울 속의 거꾸로 된 상(像), 어부의 유혹과 굴원**

"한 나라의 군주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현명하든 불초하든 모두 충신과 현신을 찾아서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보좌하기를 바란다."
"나라를 망치고 패가망신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성공한 왕도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군주가 말하는 충신이 사실은 충성스럽지 못하고, 군주가 말하는 현신이 사실은 현명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신하가 못되기 때문이다. 초나라 회왕은 충신의 직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으로는 자기 부인 정수에게 미혹 당했고 밖으로는 진나라 장의에게 속아 굴원을 멀리하고 상관대부와 영윤 자란을 신임하여 군사는 패배하고 영토를 빼앗겨 6군을 잃어버리고 끝내 자신도 진나라에서 죽게 되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인물의 충정과 아부를 판별하지 못한 데에서 초래된 재앙이다"(사마천, 「굴원가생열전」)

(어부와의 대화)
- "아니? 당신은 그 유명하신 삼려대부 아니시오?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 "온 세상이 더러운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닌데 나 홀로 깨어 있어 이곳으로 쫓겨 왔소이다."
- "성인이시라면 때에 따라 순응할 줄 알아야겠지요. 온 세상이 더러우면 왜 그 속에 뛰어 들어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모두들 술에 취해 있으면 왜 함께 술지게미라도 드시지 않는 겁니까? 당신의 재능과 덕성이 옥처럼 아름답다면서 어째서 이곳까지 쫓겨 오신 겁니까?"
- "막 목욕을 끝낸 사람은 언제나 모자를 청결히 하고 옷의 먼지를 털어내는 법이지요."
- "깨끗한 몸에 더러운 것을 기꺼이 묻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저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세속의 더러움을 몸에 묻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심에서 훌훌 떠나고 싶다-「이소(離騷)」**

초나라의 노래인 『초사』를 대표하는 작품.
'소인(騷人)'
『초사』는 말 그대로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
「이소」는 '근심에서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노래. 2477자로 이루어짐.

"아침에 구의산(九疑山)에서 수레를 몰아 저녁에 곤륜산에 이른다. 아름다운 신선 궁에 머무는데 갑자기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태양 수레를 모는 희화에게 말을 맡기니 엄자산을 지나면서도 머물지 않는다. 길은 아득하게 멀고 험해도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디라도 찾아 헤매리. 함지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며 말고삐를 부상에 매어 두었다. 양목을 꺾어 해를 가리고 잠시 거닐고 배회한다. 망서를 앞세워 인도하게 하고 비렴을 뒤에 세워 따라가게 하였다. 봉황은 나를 위해 경계하게 하고 우레의 신은 나에게 준비가 덜 되었다 이른다. 봉황새를 날려 보내 밤낮으로 날아오르게 했지. 회오리바람은 흩어지지 않고 구름과 무지개 거느리고 와서 맞이하니.... 하늘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 달라 했지만 하늘 문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누나..."

"아침에는 목란에 내린 이슬을 먹고 저녁엔 가을 국화에서 떨어진 꽃잎을 먹는다(朝飮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 내 마음 진실로 성실하고 정결하다면 오랫동안 배 좀 고픈들 뭐 어떠랴."

"길은 아득히 멀지만, 나는 아래위로 열심히 찾아다닌다(路曼曼其修遠兮, 吾將上下而求索)."

**「천문」(하늘에게 묻노니)에 들어있는 '소수민족'의 향기**

「천문」은 매우 독특한 작품. 하늘에게 170여 가지의 질문을 쏟아 내고 있음.

"묻노니 그 옛날 태초의 시작에 누가 그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나?
천지 상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살폈나?
곤(鯀)은 치수를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째서 그를 추천했을까?
사람들이 이르기를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어찌해서 시험 삼아 시켜보지 않습니까?'
거북이와 부엉이가 끌고 물어 도왔다는데 강직한 곤이 어찌 그들의 말을 들었는가?"

"뭇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치수에 성공하려고 했는데 요임금은 어찌하여 그에게 형벌을 가하였나?"

"우(禹)는 곤의 배를 가르고 나왔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가 곤의 일을 계승해서 끝내 완성했네.

어찌해서 우는 아버지의 일을 계승했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는가?
홍수의 원천이 깊고 깊은데 우가 어떻게 그것을 메웠을까? 응룡이 꼬리로 땅에 금을 그었다..."

**단오 날의 '쫑즈[粽子]'는 굴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굴원이 강물에 뛰어든 날은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풍습과 굴원
-쫑즈[粽子]
-용주(龍舟)시합

광서 좡족자치구 남녕[南寧난닝]에 있는 광시박물관에 많이 수장되어 있는 청동북, 즉 동고(銅鼓)에 나타난 문양

**굴원이 지키고자 했던 것- 초나라 땅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

'애국시인' 굴원?
- '초나라에 세 집만 남아도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은 초나라'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초나라 사람들의 저항정신은 강했다. 그리고 그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저항정신은 중국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굴원은 그 땅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애국시인'이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대 민족국가 개념에 적용시켜 국가를 위해 불타는 애국심을 지녔던 시인으로 읽어내는 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며 『초사』에 대한 오독.

마오쩌둥과 굴원
- 마오쩌둥은 50여 종에 달하는 『초사』의 모든 판본을 수집하여 읽었음.
『초사』에는 '민주의 분위기[民主色彩]'와 '낭만주의' 사상이 들어있다고 말함.

시인 굴원이 진정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초나라 땅'이었다기보다는 '영혼의 자유'.